

# 도시 비취업주부 가계의 가족체계역동성 및 경제복지감

## A Study of Urban Unemployed Housewives' Dynamics of Family System and their Economic Well-Being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자원경영전공  
교수 계선자  
동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환경학과  
부교수 강혜경  
강사 유을용

Dep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Sunja Kye

Dept. of Child & Family Environment, Dongeu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yekyoung Kang

*Lecturer* : Eulyong Yoo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We analyzed the dynamics of the family system and the economic well-being by utilizing the socio-demographic, objective economic, and subjective economic factors of urban unemployed housewive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Seoul and three other major cities. The subjects included housewives in these areas who were currently cohabiting with their spouses and had at least one child. The preliminary and main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between November 12, 2001 and February 27, 2002. Three hundred five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We applied the frequency, average, percentag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ronbach's, simple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PC WI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 of the availability of life information was 3.21.

Second, when the availability of life information increased, the dynamics of family system improved.

Third, when the dynamics of family system worked well, the housewives experienced economic well-being.

**주제어(Key Words):** 비취업주부(unemployed housewives), 가족체계역동성(the dynamics of family system), 경제복지감(economic Well-being)

## I. 서론

산업화가 진전되고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 및 가계의 경제는 양적인 면에서 많은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여 질적인 측면 즉, 행복하게 사는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고 그런 의문들에 대한 대답의 하나로 복지감에 관련된 많은 연구(김명자, 1992; 박미석, 1996; Hsieh, 1997; McGregor & Goldsmith, 1998; Park, 1992; Watson & Fitzsimmer, 1993)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의 결과 경제복지감은 인간의 삶에서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복지감은 욕구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충족 정도로 개인 및 가정생활의 발전과 향상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주관적인 행복, 만족도 뿐 아니라 객관적인 후생까지도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이다(강이주 등, 1999; Poter & Garman, 1993). 같은 맥락으로 경제상태에 의한 생활만족도의 차이 또는 생활의 질 차이를 규명한 연구들(박미금 · 계선자, 1994; 이미숙 등, 2000)을 보면 경제적 상태가 인간과 가족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

한편 가족구성원들의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은 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제복지감에도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가족관계가 수직관계에서 평등관계로 전환하는 현 시점에서 가족응집력은 가족구성원이 서로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도와주며 가족적응력은 여러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관계에서의 역할이나 규칙, 권력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처능력을 갖게 하여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도시 비취업주부가 인지하는 경제복지감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하며 이와 더불어 부부중심의 평등사상이 팽배해져가는 한국가족에서 부부의사소통도,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을 주축으로 하는 가족체계역동성이 경제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국민의 대다수가 절실하게 경제 불황을 자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조선일보 2004년 7월 20일자) 가족체계 내의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에 따라 비취업주부가 인지하는 가계의 주관적 경제복지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주부의 경제적 복지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가계의 경제복지감은 객관적인 경제수준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주관적인 경제복지감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므로 진정한 경제복지감의 측정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체계역동성<sup>1)</sup>

Olson, Sprenkle & Russel(1979)이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으로 가족의 기능을 설명한 순환모델을 사용한 이후 가족체계역동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

1) 비취업 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선행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이론적 배경은 전체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연구된 자료임을 밝힌다.

행되고 있다. 가족체계는 인적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로 구성되고 이 두 하위체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 한다. 그리고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 그리고 기능성으로 대표되는 체계역동성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촉진된다. 이는 건전한 가족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며 효율적인 체계의 공동상승효과(synergistic-mechanism)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같이 체계 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체계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특징을 지니며 전체로서 그 자체의 발달을 갖는다(Deacon & Firebaugh, 1988; 가정관리학 연구회 옮김, 1991).

가족응집성이란 가족원간에 갖게 되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Olson 등은 하위지표로 가족 공동의 시간과 가족원 개인의 사적 시간의 허용정도, 친구관계, 의사결정유형, 가족과 개인의 취미 및 여가공유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인들로 측정되는 응집성은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밀착이라는 4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응집력수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간정도의 가족응집력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견해(Rodick et. al., 1986; Olson, 1988)와 가족응집력 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견해(Herring, 1985; Smith, 1985)가 있다(계선자·한정화 1997에서 재인용).

또한 순환모델에서 의사소통은 가족응집성과 적응력 두 차원을 이동시키는 촉매역할을 하므로 의사소통은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을 더 약화시킬 수도 혹은 향상시킬 수도 있다(Olson & Olson, 21세기 가족문화 연구소 편역, 2002). 특히 현대사회는 핵가족이 주를 이루며 핵가족의 기초는 부부관계이므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역기능적이고 원활하지 못할때는 부부관계에 심한 장애가 초래된다.

한편 가족적응력은 가족체계가 상황이나 발달에 대응하여 권력구조와 역할관계, 그리고 관계규칙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이의 측정은 가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유형, 리더십, 부모의 양육태도, 타협방식, 역할관계, 가족규칙의 융통성 등 여

섯 요인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경직, 구조, 융통, 혼돈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Olson et al., 1983). 다시말해 가족적응력은 가족 내의 권력구조와 역할관계가 갖는 상황성 및 가족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압력에 대한 가족체계의 대처능력으로 가족체계는 안정과 변화의 균형을 요구한다. Olson과 Defrain(1994)은 가족적응력을 가족구성원이 상황적,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관계에서의 역할이나 규칙,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가족적응력을 상호 주장적인 대화, 지도력의 공유, 부모의 자녀훈육법, 성공적인 역할타협, 역할의 공유 및 융통성 있는 가족규칙의 6가지 변인들로 측정하였다.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은 가족기능과 대체적으로 선형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상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및 의사소통을 연구한 연구(전귀연, 1999)에 의하면 가족응집성, 가족적응력과 가족의 기능과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 및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안선영, 1994)에서도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한 김명자(1992)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기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으로 계선자·한정화(1997)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응집력과 가족 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주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이 경제복지감에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기능이 사회로 적지 않게 이전되고 핵 가족화 됨에 따라 가정의 중요성이 덜 부각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건전한 가족문화는 정신적인 행복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주관적인 지표인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킴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가족체계역동성의 하위영역을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 부부 의사소통도로 분류하여 이들의 변인이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경제복지감

McGregor와 Goldsmith(1998)는 경제복지감이란 개인과 가족원이 느끼는 경제적 안정감과 걱정감의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실직, 질병, 파산, 빈곤 등의 재정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경제복지감은 개인이나 가족이 경험하는 전체 복지감과 생활의 질의 중심요소로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다.

Walson(1991)에 의하면 경제적 복지는 전반적 복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역 중 하나이며 개인 또는 가족원들이 인지하는 경제적 걱정감 및 안전성이라고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강이주 등(1999)에 의하면 경제적 복지의 개념은 세 가지 구성요소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적정성(adequacy), 안정성(stability), 안전성(security)이다. 적정성은 표준과 실제 현실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안정성은 일정한 수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안전성은 닥쳐올지 모르는 경제적, 재정적 위기의 대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박미금·계선자(1994)도 경제복지감이란 경제생활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정의 객관적 경제상태 혹은 자원사용에 대한 개인의 지각도가 경제복지감이며 이러한 가정의 경제복지감은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파악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Walson과 Fitzsimmons(1993)도 경제복지감은 개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걱정감, 안정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는 객관적 재정상태와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만족감 등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주관적인 가계경제 복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판단하는 소득의 적정도, 총 가계소득에 대한 적정도, 저축액수에 대한 만족도, 현재 빚에 대한 불만의 정도, 현재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계 순자산에 대한 만족도, 재정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한 만족도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경제복지감을 측정하였다. 다시 말해 경제복지감은 개인이나 가족의 재정 적정도와 안정도의 정도를 말하며, 경제복지감은 경제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되기도 하고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또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가계의 객관적 경제복지수준은 가계가 처해있는 객관적인 재정상태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화폐소득액, 소비지출액, 총자산, 순자산, 총부채 등의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복지수준으로 측정된다(Winter et. al, 1988),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상태 및 재화와 내구재 소비와 같은 변인(Godwin & Carrol, 1986; Hira, 1986)을 사용하거나 저축, 부채, 순자산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객관적 경제복지감을 연구하였다(Fitzsimmons & Leach, 1994).

경제복지감에 대한 주관적 복지수준은 가족이나 가계관리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복지수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득적정인지, 자원적정인지, 재정적 안정도인지, 생활표준과 생활수준간의 차이 인지, 재정상태에 대한 향상감, 기대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계선자·유을용, 1999; 김효정, 2000; 박미금·계선자, 1994; 이종혜, 1993; 한정화, 1997; 홍향숙, 1999; Daniel & Maria, 1998; Hira & Mugenda, 1998; Kerkman et. al, 2000).

많은 연구자들이 가계의 복지와 관련된 평가는 객관적인 측정과 주관적인 인지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illiams(1994)은 경제복지와 생활의 질은 물질적인 측면과 비물질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즉, 객관적인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동일한 재정 자원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므로 가계의 경제복지상태는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방법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경제복지감의 척도를 살펴보면 Titus 등(1989)은 부채지불능력, 자산수준에 대한 만족, 그리고 긴급지출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재정적 안정을 측정하였으며 Walson과 Fitzsimmons(1993)는 가계소득 적정도 인지와 가계소득, 저축가능액, 현재부채액, 소비수준, 순자산의 양, 재정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의 양에 대한 만족도를 주

관적 경제복지지표로 삼았다. 박미금·계선자(1994)는 가정의 경제생활 영역을 일상적인 소비생활, 생활표준달성, 경제환경 변화대비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을 연구한 한정화(1997)는 주관적 경제복지감으로 과거 경제복지감, 현재 경제복지감, 미래 경제복지감을 측정지표로 구성하였다.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 가정경제기여도 및 경제복지감을 연구한 강기정(1999)은 가정의 경제생활수준, 일상적 소비생활수준, 총소득, 순자산, 저축액, 비상 준비금, 노후자금 그리고 경제수준 향상감 등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정도로서 경제복지감을 측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제복지감의 개념은 객관적, 주관적 척도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객관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 정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 3. 가족체계역동성과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 1) 연령

가족응집성의 경우 안선영(1994)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적응력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주부들의 가족 적응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자·김갑숙(1996)에 의해서도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적응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한편 연령과 경제복지감 사이의 관계를 볼 때 다수의 연구에서 주부의 연령 및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재정적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이중혜, 1993; 홍향숙, 1999; 최자령·임정빈, 1996; Winter et. al., 1988; Sumarwan & Hira, 1993). 반면 임정빈 등(1998)의 연구와 김연정·김순미(1991)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재정적 만족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 2) 교육수준

가족응집성의 경우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았으나 안선영(1994)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응집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적응력의 경우 김수연·김득성(1994)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도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계선자·유을용, 1999; 황덕순, 1995; Walson & Fitzsimmons, 1993). 그러나 임정빈 등(1998)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지출 및 경제손실의 문제를 높게 인지하여 학력과 경제복지감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박미금·계선자(1994)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 경제복지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직업

가구주의 직업 및 주부의 취업여부 그리고 직업유형은 가계소득 및 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제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구주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때, 다시 말해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분배에 제약을 적게 받아 재정문제의 경험을 적게 하므로 가계재정복지 수준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선자·유을용, 1999; 이경옥, 2000; 한정화, 1997; 홍향숙, 1999).

박선옥(1996)은 비취업 주부보다 취업주부가 재정문제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혼여성들의 취업동기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주부의 직업유형과 재정위기 대처행동간의 관계를 볼 때 이경옥(2000)은 전문직 여성의 경우 적극적 대처를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황덕순(1995)은 주부의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규범적 절약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주부의 취업여부와 경제복지감은 김효정(2000)에 의하면 취업한 주부일수록 비취업 주부 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음으로 인해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Hafstrom(1986)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직업은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으며 같은 맥락으로 주부의 취업에 따른 경제복지감을 연구한 Sumarwan과 Hira(1993)도 취업주부가 비취업 주부에 비해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중혜(1993)의 연구에서도 비취업 주부의 경우 가계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가계에서 주부가 취업한 경우에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 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경제복지감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취업 주부만을 대상으로 경제복지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자녀수

김진희(1989)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이미선(1995)의 연구에서도 소수자녀의 가족인 경우 가족응집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정자·김갑숙(1996)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응력의 경우도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되고 있다(이정우·김연화, 2001). 한편 자녀수에 따른 의사소통은 대부분 자녀가 없거나 적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도가 높게 나타났으나(하상희·지금수, 1999), 허윤정(1997)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수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 5) 월평균소득

가계소득은 가정생활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가계의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계소득이 재정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계선자·유을용, 1999; 이경옥, 2000; 황덕순·정운용, 2001; 홍향숙, 1999; Hira & Mugenda, 1998; Poter & Garman, 1993; Sumarwan

& Hira, 1993)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이상의 변인 외에 주관적 변인인 생활정보활용도, 내외통제성이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유을용, 2002)를 토대로 생활정보활용도, 내외통제성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도시 비취업 주부의 배경변인, 가족 체계역동성,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시 비취업 주부의 배경변인은 가족 체계역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도시 비취업 주부의 배경변인은 경제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도시 비취업 주부의 가족체계역동성은 경제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도시 비취업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대한 배경변인, 가족체계역동성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 2. 변수의 정의

##### 1) 배경변인

###### (1) 생활정보활용도

가계재무관리, 물가, 주식, 세금 그리고 소비자 문제 등에 관련된 생활정보를 대중매체와 관련기관 등에서 탐색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제 활용하는 정도

###### (2) 내외통제성

자신의 운명을 누가 통제한다고 믿는 개념으로 내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외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운이나 기회 또

는 강력한 타인들에 의해 자신의 삶이 통제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2) 가족체계역동성

### (1) 가족응집성, 적응력

가족응집성이란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개인이 가족 내의 다른 성원들과 어느 정도 분리 혹은 연결되어 있는 정도에 대해 주부가 느끼는 자각 정도를 의미하며 가족적응력은 가족 구성원이 상황적,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가족 내에서의 역할, 규칙 그리고 권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처능력에 대하여 주부가 자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 (2) 부부의사소통도

부부간의 대화 방법, 빈도, 표현정도 등 경제문제를 포함한 가정 내·외에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주부가 인지하는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 3) 경제복지감

경제복지감은 경제자원 적정감, 상대적 만족감, 재정적 안정감 등을 말한다. 경제자원 적정감이란 개인 및 가족의 요구나 목표달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에 대하여 주부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적정감 정도를 말하며, 상대적 만족감이란 친구나 이웃 등 주위사람과 혹은 과거에 비하여 우리가정의 구매활동수준 및 경제생활수준에 대하여 주부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만족 정도를 말한다. 또한 재정적 안정감이란 자녀의 대학교육비, 결혼비용 및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가장의 실업,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준비금 등과 관련하여 주부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재정적 안정 정도를 의미한다.

## 3. 조사도구의 구성

생활정보활용도는 김경숙(1993)의 연구를 참고로 총 7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활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계수는 .80이다. 내외통제성은 Potter(1966)의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I-E) scale을 참고로 한 김혜정·이기영(1997)의 연구를 기초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외적통제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 계수는 .69이다.

가족체계역동성의 경우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Poter & Lavee(1985)가 개발한 FACEIII(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III, 1985)를 수정하여 사용한 김수연(1998)의 설문을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에 각각 5점 Likert 척도의 8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ronbach  $\alpha$ 계수는 각각 .84, .67이다. 부부의사소통도는 Goldsmith(1996)의 연구를 기초로 관련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총 5문항으로 작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계수는 .87이다.

경제복지감은 Rowland, Dodder와 Nickols(1985)의 연구를 기초로 Danes와 Retting(1993), 한정화(1997), 강기정(1999)의 재정복지척도와 경제복지감 모델의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경제자원 적정감, 상대적 만족감, 재정적 안정감 등의 하위영역으로 총 11문항이 구성되었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 4.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비취업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2년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305부의 응답이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자료처리는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 Cronbach  $\alpha$ 계수, 단순 회귀분석 및 중다 회귀분석의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 주관적 변인 및 가족체계역동성,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

#### 1)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의 일반적 수준

본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의 일반적 수준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35세 이상~45세 미만(65.9%)이, 주부의 교육수준(45.2%)과 남편의 교육수준(50.5%)은 각각 대졸이, 월평균소득은 200만원이상~400만원

<표 1>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의 일반적 수준  
(N=305)

| 변인                | 구분             | 빈도                | %    |      |
|-------------------|----------------|-------------------|------|------|
| 배경<br>변인          | 연령             | 35세 미만            | 44   | 14.4 |
|                   |                | 35세 이상~40세 미만     | 101  | 33.1 |
|                   |                | 40세 이상~45세 미만     | 100  | 32.8 |
|                   |                | 45세 이상~50세 미만     | 41   | 13.4 |
|                   |                | 50세 이상            | 17   | 5.6  |
|                   |                | missing data      | 1    | .3   |
|                   | 주부<br>교육<br>수준 | 중졸 이하             | 19   | 6.2  |
|                   |                | 고졸                | 136  | 44.6 |
|                   |                | 대졸                | 138  | 45.2 |
|                   |                | 대학원 이상            | 10   | 3.3  |
|                   |                | missing data      | 2    | .7   |
|                   | 남편<br>교육<br>수준 | 중졸 이하             | 6    | 2.0  |
|                   |                | 고졸                | 90   | 29.5 |
|                   |                | 대졸                | 154  | 50.5 |
|                   |                | 대학원 이상            | 54   | 17.7 |
|                   |                | missing data      | 1    | .3   |
|                   | 월평균<br>소득      | 200만원 미만          | 45   | 14.8 |
|                   |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87   | 28.5 |
|                   |                |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71   | 23.3 |
|                   |                |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26   | 8.5  |
|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                | 31                | 10.2 |      |
| 600만원 이상          |                | 45                | 14.8 |      |
| 남편의<br>직업<br>유형   |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    | 29                | 9.5  |      |
|                   | 사무직            | 78                | 25.6 |      |
|                   | 자영업            | 77                | 25.2 |      |
|                   | 관리·전문직         | 115               | 37.7 |      |
|                   | missing data   | 6                 | 2.0  |      |
|                   | 자녀수            | 1명                | 22   | 7.2  |
| 2명                |                | 219               | 71.8 |      |
| 3명 이상             |                | 28                | 9.1  |      |
| missing data      |                | 36                | 11.8 |      |

미만(51.8%)이, 남편의 직업유형은 관리, 전문직(37.7%)이 자녀수는 2명(71.8%)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 2) 도시 비취업주부 가계의 주관적 변인 및 가족체계역동성,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

본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변인 및 가족체계역동성,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은 <표 2>와 같다. 생활정보활용도의 점수는 5점만점에 3.21점으로 생활정보활용도가 중 이상이였다. 내외통계성은 5점만점에 3.24점으로 내적 통제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부의사소통도, 가족응집성, 가족적응력을 포함한 가족체계역동성의 점수는 5점만점에 3.5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김연화·이정우(2002)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하위영역 중 부부 의사소통도는 3.47점, 가족응집성은 3.87점, 가족적응력은 3.2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제복지감 수준은 2.81점으로 나타나 한정화(1997)의 3.13점, 최자령·임정민(1996)의 4.25점보다는 다소 낮지만 계선자·유을용(1999)의 2.76점보다는 다소 높은 경향이다. 이와같이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사시점의 경제환경 및 경제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표 2> 주관적 변인·가족체계역동성 및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  
(5점만점)

| 변인       | 평균   | 표준편차 |
|----------|------|------|
| 생활정보활용도  | 3.21 | .70  |
| 내외통계성    | 3.24 | .36  |
| 부부 의사소통도 | 3.47 | .78  |
| 가족응집성    | 3.87 | .54  |
| 가족적응력    | 3.25 | .65  |
| 가족체계역동성  | 3.54 | .52  |
| 경제복지감    | 2.81 | .84  |

### 2. 도시 비취업 주부 가계의 배경변인이 가족체계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배경변인이 도시 비취업주부 가계의 가족체계역



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3>과 같다. 도시 비취업주부 가계의 가족체계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생활정보활용도( $\beta=.312$ )로 나타났으며 이의 설명력은 13%였다. 즉 주부의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가족체계역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부 의사소통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직업이 관리·전문직( $\beta=-.098$ ), 생활정보활용도( $\beta=.337$ )이며 이들의 설명력은 16%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남편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이 아닐수록 부부의사소통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비취업 주부의 발언권이 높아져, 부인 중심의 생활로 의사소통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가족응집성의 경우 월평균소득( $\beta=.170$ ), 생활정보활용도( $\beta=.164$ )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가정 내 저축액이 많을수록 가족응집력이 높다는 견해를 보인 계선자·한정화(1997)의 연

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다.

한편 가족적응력은 생활정보활용도( $\beta=.192$ )가 높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부의 생활정보활용도는 가족체계역동성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 교육 그리고 경제생활에 대한 생활정보를 많이 소유한 주부는 남편과의 의사소통은 물론 가족원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같은 결과는 가정생활에 적극적인 주부는 가족간의 화합과 적응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3. 도시 비취업주부 가계의 배경변인이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도시 비취업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경제복지감은 <표 4>와 같다. 월평균소득( $\beta=.420$ )과 생활정보활용도( $\beta=.259$ )의 변인이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표 3> 도시 비취업주부 가계의 배경변인이 가족체계역동성에 미치는 영향력

| 변인             | 부부의사소통도     |         | 가족응집성    |         | 가족적응력  |         | 가족체계역동성  |         |       |
|----------------|-------------|---------|----------|---------|--------|---------|----------|---------|-------|
|                | b           | $\beta$ | b        | $\beta$ | b      | $\beta$ | b        | $\beta$ |       |
| 배경<br>변인       | 주부연령        | -.001   | -.010    | -.016   | -.169  | .014    | .121     | -.001   | -.014 |
|                | 남편연령        | -.019   | -.142    | -.014   | -.148  | -.0008  | -.007    | -.011   | -.129 |
|                | 주부 교육수준     | .007    | .010     | -.028   | -.058  | .071    | .122     | .016    | .036  |
|                | 남편 교육수준     | .089    | .137     | .030    | .066   | -.024   | -.043    | .032    | .074  |
|                | 자녀수         | -.120   | -.082    | -.022   | -.022  | -.075   | -.061    | -.072   | -.075 |
|                | [남편의 직업유형]a |         |          |         |        |         |          |         |       |
|                | 사무직         | -.208   | -.125    | -.056   | -.047  | .141    | .100     | -.041   | -.037 |
|                | 자영직         | -.014   | -.008    | -.039   | -.031  | .103    | .069     | .016    | .014  |
|                | 관리·전문직      | -.152   | -.098**  | .051    | .046   | .067    | .005     | -.032   | -.031 |
|                | 월평균소득       | .013    | .028     | .056    | .170** | -.015   | -.038    | .018    | .059  |
| 생활정보활용도        | .377        | .337*** | .131     | .164**  | .181   | .192**  | .230     | .312*** |       |
| 내외통제성          | -.022       | -.010   | .104     | .068    | -.078  | -.043   | .002     | .001    |       |
| 상수             | 3.193       |         | 4.244    |         | 2.412  |         | 3.283    |         |       |
| R <sup>2</sup> | .163        |         | .140     |         | .059   |         | .137     |         |       |
| F값 및 유의도       | 4.313***    |         | 3.583*** |         | 1.397  |         | 3.503*** |         |       |

\* $p<.05$  \*\* $p<.01$  \*\*\* $p<.001$

a: 남편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인 경우를 1, 사무직, 자영직, 관리·전문직인 경우를 각각 0으로 둔 가변수이다.

〈표 4〉 도시 비취업주부의 배경변인이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

| 변인             |                         | 경제복지감 |         |
|----------------|-------------------------|-------|---------|
|                |                         | b     | $\beta$ |
| 변인             | 남편연령                    | .011  | .073    |
|                | 주부 교육수준                 | .090  | .117    |
|                | 남편 교육수준                 | -.036 | -.050   |
|                | 자녀수                     | -.154 | -.095   |
|                | [남편의 직업유형] <sup>a</sup> |       |         |
|                | 사무직                     | .036  | .019    |
|                | 자영직                     | .134  | .067    |
|                | 관리·전문직                  | .305  | .175    |
|                | 월평균소득                   | .217  | .420*** |
|                | 생활정보활용도                 | .325  | .259*** |
| 내외통제성          | -.110                   | -.046 |         |
| 상수             | 2.051                   |       |         |
| R <sup>2</sup> | .319                    |       |         |
| F값 및 유의도       | 10.328***               |       |         |

\*p<.05 \*\*p<.01 \*\*\*p<.001

a: 남편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인 경우를 1, 사무직, 자영직, 관리·전문직인 경우를 각각 0으로 둔 가변수이다.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 가정의 실질적 소득의 양에 따라 주부가 인지하는 경제복지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결과는 강기정(1999), 계선자·유을용(1999), 황덕순·정운용(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주부의 높은 생활정보활용도는 경제복지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강기정(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이와같은 결과는 물가, 주식 그리고 가계재무관리와 관련된 생활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보다 경제적인 가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주부 스스로 가계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주부의 일상생활에서 생활정보활용 및 정보관별을 위한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4. 도시 비취업주부 가계의 가족체계역동성이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도시 비취업주부 가계의 가족체계역동성이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5〉와 같다. 가족체계역동성( $\beta=.294$ )은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체계역동성의 각각의 하위영역인 부부의사소통도( $\beta=.141$ ), 가족응집성( $\beta=.128$ ), 가족적응력( $\beta=.121$ ) 모두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계선자·한정화(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의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함께 가족원간에 서로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 주부가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한다면 가족들이 서로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안정감을 얻게 되어 최종적으로 경제복지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이 많이 사회로 이양되고 핵 가족화됨에 따라 가정의 중요성이 덜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전한 가족문화는 정신적인 행복과 함께 최종적으로 경제복지감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환경 하에서 주부의 경제복지감은 객관적인 경제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가족응집성 및 적응력의 제고를 통하여 더욱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표 5〉 도시 비취업주부 가계의 가족체계역동성이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

| 변인             | 경제복지감     |         |
|----------------|-----------|---------|
|                | b         | $\beta$ |
| 부부 의사소통도       | .150      | .141**  |
| 응집성            | .198      | .128**  |
| 적응력            | .155      | .121*   |
| 가족체계역동성        | .474      | .294*** |
| 상수             | 1.134     |         |
| R <sup>2</sup> | .086      |         |
| F값 및 유의도       | 28.571*** |         |

\*p<.05 \*\*p<.01 \*\*\*p<.001

다. 다시말해 가정의 중요성은 각박해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며 가족의 응집성 향상과 적절한 수준의 가족적응력을 위해서 부부를 비롯한 온 가족이 최선의 노력을 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도시 비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군의 상대적 영향력

도시 비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주관적 변인)과 가족 체계역동성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 군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1단계에서는 배경변인 중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배경변인 중 주관적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3단계에서는 가족체계역동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표 6).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주부의 연령( $\beta=-.164$ )과 월평균 소득( $\beta=.422$ )이 영향변인으로 밝혀졌다.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은 것은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육비가 덜 지출됨으로 말미암은 결과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을용(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음 2단계에서 주관적 변인을 추가한 결과 주부의 연령( $\beta=-.162$ ), 남편의 직업이 자영직( $\beta=.139$ ), 관리·전문직( $\beta=.168$ )인 경우 그리고 월평균소득( $\beta=.410$ ), 생활정보활용도( $\beta=.158$ )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연령이 낮고, 남편의 직업이 단순노무직, 생산기능직에 비하여 자영직이거나 관리·전문직일 경우,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정보활용도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가족체계역동성을 추가하

<표 6> 도시 비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 변인             | 1 단계                    |         | 2 단계      |         | 3 단계      |         |         |
|----------------|-------------------------|---------|-----------|---------|-----------|---------|---------|
|                | b                       | $\beta$ | b         | $\beta$ | b         | $\beta$ |         |
| 사회인구학적<br>변인   | 주부연령                    | -.025   | -.164*    | -.025   | -.162*    | -.023   | -.153*  |
|                | 남편연령                    | .010    | .067      | .009    | .063      | .014    | .092    |
|                | 주부 교육수준                 | .074    | .098      | .072    | .095      | .070    | .093    |
|                | 남편 교육수준                 | .034    | .048      | .033    | .046      | .020    | .029    |
|                | 자녀수                     | -.121   | -.075     | -.128   | -.079     | -.110   | -.068   |
|                | [남편의 직업유형] <sup>a</sup> |         |           |         |           |         |         |
|                | 사무직                     | .151    | .077      | .133    | .067      | .127    | .065    |
|                | 자영직                     | .294    | .148      | .274    | .139*     | .225    | .115    |
|                | 관리·전문직                  | .334    | .190      | .295    | .168*     | .278    | .158*   |
| 주관적<br>변인      | 월평균소득                   | .002    | .422***   | .002    | .410***   | .002    | .396*** |
|                | 생활정보활용도                 |         |           | .194    | .158***   | .128    | .105*   |
| 가족체계<br>역동성    | 내외통제성                   |         |           | .035    | .015      | .063    | .027    |
|                | 부부 의사소통도                |         |           |         |           | .127    | .116*   |
|                | 가족 응집성                  |         |           |         |           | .091    | .066    |
|                | 가족 적응력                  |         |           |         |           | .068    | .055    |
| 상수             | 2.525                   |         | 1.862     |         | .787      |         |         |
| R <sup>2</sup> | .311                    |         | .330      |         | .359      |         |         |
| F값 및 유의도       | 20.624***               |         | 18.152*** |         | 15.936*** |         |         |

\*p<.05 \*\*p<.01 \*\*\*p<.001

a: 남편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인 경우를 1, 사무직, 자영직, 관리·전문직인 경우를 각각 0으로 둔 가변수이다.

여 분석한 결과 주부의 연령 ( $\beta = -.153$ ), 남편의 직업 ( $\beta = .158$ ), 월평균소득 ( $\beta = .396$ ), 생활정보활용도 ( $\beta = .105$ ), 부부의사소통도 ( $\beta = .116$ )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관리, 전문직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정보활용도 및 부부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 단계별 설명력을 살펴보면 처음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결과 설명력이 31% ( $p < .00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주관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33% ( $p < .001$ )로 1단계에 비하여 2%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다음 3단계에서 가족체계역동성 변인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36% ( $p < .001$ )로 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비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주부의 48.5%, 남편의 68.2%가 대졸 이상이었으며, 월평균소득은 85.3%가 200만원 이상 이었다. 생활정보활용도는 중 이상이었으며, 내적 통제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믿는 경향이 높았으며, 가계 재무관리 및 물가, 주식, 세금 등에 관련된 생활정보를 대중매체와 관련기관에서 탐색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제 활용하는 정도가 중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 가정의 실질적 소득의 양에 따라 주부가 인지하는 경제복지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계소득의 향상을 위해서 가족구성원들이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을 포함한 가족체계역동성과 경제복지감이 높

게 나타났다.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는 정도가 높은 주부일수록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족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고 더불어 각종 상황에 대한 적응을 잘 해 나가고 있으며, 가족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힘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생활정보를 많이 접하고 활용할수록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가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복지감이 높아진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부 스스로 가계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주부의 생활정보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교육기관에서는 주부에게 적절하고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체계역동성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 가족의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함께 가족원간에 서로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 주부가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한다면 가족들이 서로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안정감을 얻게 되어 최종적으로 경제복지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러므로 건전한 가족문화의 형성은 정신적인 행복과 함께 최종적으로 경제복지감의 증진을 가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취업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군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른 변인에 비하여 배경변인 중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비취업 주부들의 생활정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여성 및 소비자 단체 그리고 매스컴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복지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가계소득의 향상과 함께, 가족체계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구성원의 인간관계향상 교육프로그램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부부의 의사소통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부관계 교육,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기정(1999).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 가정경제기여도 및 경제복지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강이주, 김영신, 허경옥(1999). 가정경제학의 이해. 학지사.
- 고정자, 김갑숙(1996). 가족응집성, 적응성 및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 계선자, 유을용(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 능력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35-49.
- 김경숙(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경숙, 이정우(1993). 취업주부의 객관적·주관적 자원, 가정관리능력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11.
-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연구. 숙대논문집, 33, 31-56.
- 김수연(1998). 가족사정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김수연, 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김진희(1988).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이기영(1997). 주부의 화해관리전략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 17-26.
- 김효정(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 및 경남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5.
- 박미금, 계선자(1994).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06-117.
-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33-47.
- 안선영(1994).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력과 권위유형, 성역할 태도와와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79-91.
- 유을용(2002). 도시주부이 재정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중류층 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옥(2000). 가계의 경제위기대처행동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 고선주, 권희경(2000).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38(6), 117-132.
-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이정우, 김연화(2001). 도시인의 생활예절 수행이 가족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2(2), 69-86.
- 이정우, 이미선(1995). 취업주부가 인지한 가족응집성, 적응력 및 가사노동수행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71-84.
- 전귀연(1999).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99-111.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자령, 임정빈(1996).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75-189.
- 하상희, 지금수(1999).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 및 수행도와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17-33.
- 한정화(1997).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황덕순, 정운영(2001). 재무태도와 재무 의사소통이 재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9(8), 121-134.
- 홍향숙(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2004년 7월 20일자
- Danes, S. M. & Retting, K. D. (1993).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Family Financial Situ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65-389.
- Deacon, R. E. & Firebaugh, F. M.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 Bacon, Inc.
- Fitzsimmons & Leach, L. J. (1994). Net worth change : Beginning and Expanding life cycle stag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65-82.
- Goldsmith, E. B. (1996). Resource Management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Florida State University. West Publishing Company.
- Godwin, D. & Carrol, D. D. (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and behavior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Hira, T. K. & Mugenda, O. M. (1998). Predictors of Financial satisfaction: Differences between retirees and non-retire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75-83.
- Hira, T. K., Fitzsimmons, V. S., Hafstrom, J. L. & Bauer, J. W. (1993). Factors Associated with Expectation of Household's Future Financial Condi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37-256.
- Hsieh, C. M. (1997). Financial well-being and happiness among middle-age and old-age America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Kathleen, M. M. (1994). Conflict and financial decision making: A study of financial satisfaction for husbands and wives. University of Minnesota. Ph.D.
- McGregor, L. T. & Goldsmith, E. B. (1998).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quality of life, standard of living, and well-being.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Summer, 2-6.
- Olson, D. H., DeFrain, J. & Olson, A. K. (1999). Building Relationship Devepoing Skill for Life, 21세기 가족문화연구소 편역, 2002.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서울: 양서원.
- Olson, D. H., & Porther. J. (1983).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University of Minnesota.
- Poter, N. M. & Garman, T. (1993). Testing a conceptual model of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35-164.
- Sumarwan, U. & Hira, T. K. (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3.
-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 K.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 Walson, C. O. & Fitzsimmons, V. S. (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193-214.
- Williams, F. L. (1994). Economic well-being : A five-star approach.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2, 17-21.
- Winter, Morris. & Rubic. (1988).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financial well-being among farmers.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34, 293-299.

(2004년 7월 29일 접수, 2004년 10월 7일 채택)